

근본 버리고 지말을 따르는가? 새로운 결사로 쇠신하라

40 조계산에 핀 꽃 송광사(성)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거의 모든 스님들이 이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정식 승려가 되기 전, 행자시절에 공부했을 겁니다. 노스님들 가운데 '부엌에서 군불을 넣으며 달 달 외었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가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수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기본 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의 첫 글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입니다. 글자 그대로 처음 발심한 학인이 경계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글의 제목 아래에는 '해동사문(海東沙門 목우자(牧牛子) 술(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우자. 보조(普照)국사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의 자호입니다. 수행의 길에 갓 들어선 행자가 처음 접하는 글의 저자라면, 그 저자는 책으로 만나는 첫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지눌 스님은 모든 스님들에게 책으로 만나는 첫 스승이 되는 분인 셈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이 초심자의 필독서가 된 것이 1397년 조선 태조 6년부터라고 합니다. 지난 600년 간 지눌 스님은 한국의 '초심자'들에게 첫 스승으로 자리를 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찰들 가운데 특별히 3곳을 보배로 분류하여 '삼보(三寶)사찰'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을 의미하는 불보종찰(佛寶宗刹)은 양산 통도사, 부처님 가르침을 뜻하는 법보(法寶)종찰은 함천 해인사, 거룩한 승가를 뜻하는 승보(僧寶)종찰은 순천 송광사입니다. 송광사가 불보종찰인 이유는 지눌 스님 이후 15명의 국사가 배출된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16명의 국사가 배출된 도량,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필연의 길을 튼 분이 지눌 스님입니다.

고려 말기의 부패한 불교계에 혁신의 당간을 울리고 오직 수행에 의한 승단의 개혁을 주장했던 분이 지눌 스님이요 그 방법이 결사(結社)운동이었습니다. 지눌스님으로 인해 송광사의 솔향기가 널리 퍼져 나갔고 조계산의 법이 높고 우렁찬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보조 지눌 스님을 만나러 송광사로 갑니다. 지눌 스님의 부도는 송광사 대웅전 왼쪽 관음전 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친견할 수 있습니다. 경내에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높다란 언덕에 불일보조국사감로탑(佛日普照國師甘露塔, 전남도유형문화재 제256호)이 서 있습니다.

솔바람 가득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감로탑은 어느 부도와는 다른 독특한 형상입니다. 4각의 지대석과 기단석이 설치되고 다시 4각의 받침돌이 놓였습니다. 별다른 조각 없이 포개어진 중대석과 상대석은 그 매무새를 급격하게 좁혀 올라가는데 둥근 몸돌의 크기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몸돌이 크지 않으므로



보조국사비(왼쪽)가 서있는 부도발과 송광사 울원.

옥게석도 하늘로 바짝 추녀를 치켜 올렸습니다. 기와골도 귀꽃도 없이 매끈한 옥게석은 푸른 이끼가 반쯤 덮고 있어 세월의 무상을 보여줍니다.

웅장하거나 화려한 맛보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맛이 강조된 이 부도가 한국불교의 중흥조 지눌 스님의 것이라는 것은 필연입니다. 부패한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평생 절저한 수행의 모범을 보였고 수많은 대중들을 바른길로 이끌었던 스승의 영광을 모신 부도 역시 소박한 수행자의 표상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감로탑의 위치도 각별한 감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부도발은 입구에서 왼쪽 계곡을 건너 한참 산길을 올라간 곳, 울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로탑만은 경내의 뒤쪽에서 절의 전체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탑 앞에서는 절 마당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송광사에 사는 스님들은 매일 지눌 스님의 눈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스승이 저기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계초심학인문'의 송곳 같은 가르침이 스며들 것입니다. 부도발은 경내와 별도의 구역에 조성되지만, 이렇게 큰 스승의 부도가 경내를 굽어보는 곳에 있으므로 절은 더 절담고 법은 더욱 고매한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로탑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좀 서운합니다. 유

형의 문화재는 형상의 미적 가치와 양식적인 가치가 우선되었지만, 그 조형물의 정신적 가치도 반영되었다면 감로탑은 당연히 국보로 지정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감로탑의 푸른 이끼를 매만지다가 탑비를 친견하기 위해 부도발으로 향합니다. 송광사를 모르는 불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쯤 가보지 않은 불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송광사를 다녀왔다는 불자들에게 부도발에도 가 보았느냐고 물으면 "그게 어디

감도 갖게 됩니까. 부도발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옆에 '송광사보조국사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울원으로 들어가니 마침 마루에서 한담을 나누는 젊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완강하게 출입금지를 주장합니다. 얼굴이 훤한 스님이 부도발까지 따라와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눌 스님의 탑비는 어느 것인가?" "저기,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함장을 하고 돌아서는 스님의 눈매가 시원한데 얼굴에 약간의 웃음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담을 따라 부도발의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 알게 됐습니다. 보조국사비가 우뚝하게 서 있는 부도발의 위쪽은 담장이 무너져 들어가고 나오는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면 순례자들의 정직한(?) 태도가 울원의 젊은 스님에게는 좀 바보스럽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 보조국사의 비, 감로탑이 그랬듯 비도 지눌 스님의 가풍에 맞게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대석이 묻혀 버렸는지 맨몸에 그대로 몸을 올려놓은 귀부는 머리를 정면으로 내밀어 앞산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빗물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액 글씨가



송광사 경내를 굽어보는 보조국사 감로탑.

자. 8000 전에 지어진 글의 이 대목을 읽으며 지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사부대중은 근본을 버리고 지말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물어 봐야 합니다.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말은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 정법을 왜곡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시대의 사부대중은 정법과 비법을 가리는 지혜조차 흐리지 않은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 지금의 불교계가 고려 말의 '근본을 버린 상황'과 닮아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지눌 스님의 결사 운동이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지눌 스님으로부터 21세기의 한국불교로 건너온 시간에는 우여곡절이 첩첩산중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억불과 폐불, 근현대사에서의 질곡과 탄압이 적지 않은 흉터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일(佛日)이 뜨지 않은 날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기가 연속하여 소의 걸음에 범의 눈길 이었다'는 지눌 스님의 가풍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의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조계의 맑은 물은 속세의 그늘진 곳을 덮을 수 있도록 오늘의 불자들은 각고의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상에 걸터앉아 인종을 맞은 지눌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주장을 쿵쿵 내리치고 "천 가지 만 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느니라"하던 그 선승의 호랑이 눈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불일암(佛日庵)으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언덕에서 굽어보는 감로탑 보조국사의 '성성한 눈길'

'소 걸음 범의 눈'으로 일으킨 정혜쌍수 가풍 이어져

있는데요?"하고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부도발의 위치가 좀 외지기도 하고 출입이 허용되지도 않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송광사 부도발은 울원 옆에도 있고 탑전에도 있어서 제대로 안내받지 않으면 경내의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들과 성보박물관을 참배하고 둘러보는 것으로 송광사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울원 옆 송광사 부도발은 비스듬한 비탈에 층층의 단을 다지고 빼곡하게 부도를 모아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매우 웅혼한 기상을 느끼게 합니다. 석공과 원당형의 부도가 즐비하고 군데군데 탑비가 솟아 있어 전각이 빼곡한 송광사의 옛 사경을 보는 듯 한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사찰화재보험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신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사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호 전화: **010-7344-1881**

해성불원(海城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피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급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제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자서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